



일본, 말라카 해협 통과선박에 추가보험료 징수 해운업계, 말라카해협 전쟁위험지역 지정 반발

런던보험자협회가 말라카 해협을 '전쟁위험 지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하여 주변 당사국과 해운업계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선박손해보험업계가 9월1일부터 이 지역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추가 보험료를 부과기로 함에 따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의 한 해상보험 전문가는 최근 페어플레이와 인터뷰에서 이같은 조치가 런던 보험자 협회의 합동전쟁위원회(Joint War Committee)에서 말라카 해협을 보험 목적에 필요한 전쟁위험 지역으로 분류한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확인했다.

그는 보험업계에서 이 문제를 놓고 장기간 논의했으나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법 밖에는 해결

책이 없어 이같이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선박 및 손해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한 선박은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기 48시간 전에 추가 보험료 납부 금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일본 보험업계에서는 선박의 보험가액에 따라 각각 차이가 있으나 선박당 300달러 정도의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선주협회의 마사유키 이토 부부장은 말라카 해협을 경우 주변국의 노력 등으로 최근 들어 해적 사건이 줄어들고 있는데, 전쟁위험 지역으로 고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히고, 이로 인해 일본선주협회 회원사 전체는 물론 일본 화주와 경제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시아역내 수출입컨테이너물동량 증가세 둔화 올 1-7월중 520만TEU로 전년동기비 3% 증가

올들어 아시아 역내 수출입컨테이너물동량 증가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역내에 취항중인 주요선사들이 정리한 실적에 따르면, 금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아시아역내 컨테이너물동량은 520만TEU로 전년동기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건화물은 3.4% 증가한 500만TEU에 달했고, 리퍼카고는 2.9% 증가한 20만TEU에 그쳤다.

각 국가별 기준으로 한 수출입물량을 보면 일본이 수출 1.7% 증가, 수입 7.7% 증일본 관계 항로에서는, 수출이 1.7%, 수입이 7.7% 증가했으며, 한국과 대만 등 동아시아지역 국가들은 호조를 보였다.

일본을 기점으로 한 수출항로에서는 한국행이 11만TEU로 전년동기대비 40.2% 증가했으며, 대만 11만TEU로 12.2%, 기타 주요국 15만TEU로 6.7% 등이 각각 증가했다.